



'국민소주' 참이슬 200억병 팔렸다

출시 14년만에 최고 기록...초당 45병 판매
지역사랑기금 2억원 달성 사회공헌도 앞장

하이트진로(주)(대표 김인규)의 참이슬이 누적 판매량 200억병을 돌파했다.

지난 1998년 10월 출시된 이후 14년 1개월 만으로 국내소주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169개월간 월평균 1억1834만병, 하루평균 389만병, 초당 45병이 팔려나간 셈이다.

참이슬은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 참이슬 클래식이 149억9000만병, 2006년 8월 출시된 참이슬(출시당시 참이슬후레쉬)은 50억1000만병이 팔렸다.

참이슬(360ml) 200억병을 용량으로 환산하면 720만으로 코엑스 수족관(2300t)을 3130번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또한 200억병을 눌러 연결하면 서울·부산간을 5023번 왕복할 수 있고 지구둘레(4만75km)를 107회 연결할 수 있으며 국내 성인(3500만병) 1인당 571병씩 마신 것과 같다.

지난 1998년 10월 국내 소주시장에 첫선을 보인 참이슬은 소주는 25도라는 상식을 깨며 소주의 이미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바꿔놓은 국내 소주 사상 최고의 브랜드다.

공식을 만들어 냈다

이와함께 하이트진로 광주·전남권역은 '참이슬 情 나눔 지역사회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해 조성 목표액 2억 원 달성을 시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10차에 걸쳐 조성된 1억7933만5960원을 기탁했으며 오는 12월 11차 조성금을 기탁 예정으로 누적 조성금 2억 원을 달성하게 된다. 조성된 사랑기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이트진로 情 나눔 참이슬 봉사단 운영, 광주전남지역 가꾸기 사업 참여, 우수고객 사은행사, 소비자 초청 영와시사회 진행 등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재덕 하이트진로 광주 전남권역 본부장은 "참이슬이 대한민국 최고의 소주로 평가 받은데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차별화 된 고객중심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며 "하이트진로 광주전남권역은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 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도법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된다. 현재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엔제리너스 30.7%, 카페베네 28.8%에 달한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는 476m라는 점을 새 기준에 반영했다.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 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신발 속에 양털이 뾰송~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버니블루 매장에서는 올 겨울 여성들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 줄 양털 슈즈를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할리스 등 5개 가맹본부 대상

커피전문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리뉴얼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분담하게 된다.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고 가맹본부의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롯데리아(엔제리너스)·할리스·담앤파스·CJ 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8월) 연속 감소했다가 추석 성수기의 영향으로 9월에는 소폭 늘었다.

품목별 감소율은 식품이 9.2%로 가장 커고 의류, 가전·문화 제품은 각각 6.9%, 6.3%였다.

스포츠용품(-5.5%), 가정생활용품(-3.4%), 잡화(-2.8%) 등 주요 품목의 매출이 모두 부진했다.

구매 건수는 4.4%, 구매단가는 2.3% 줄어드는 등 소비자의 구매 행태

에서도 영업 부진이 드러났다. 지경부는 경기 침체와 의무휴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의 매출은 0.4% 줄었다. 여성·남성 정장의 판매가 10.6%씩 줄었고 잡화 판매도 5.7% 감소했다. 가정용품과 외국 유명상표 제품은 각각 5.6%, 4.8% 늘었다.

1인당 구매단가는 8만4천655원으로 올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3사 10월 매출 7% 감소

불황·의무휴업 영향

주요 대형마트의 월매출이 다시 줄었다.

지식경제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지난달 매출액 합계가 작년 10월보다 6.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5개월(4~

뉴스 A

먹거리X파일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의
쾌도난마**

매주 월~금 오후 4시 50분

매주 월~금 밤 9시 50분

매주 금 밤 11시

박종진 | 채널A 보도본부 경제부장

**채널A 제작담당상무
프로듀서 | 이영돈**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IPTV 13

채널A

롯데百, 지역 中企 상생의 장터 연다

28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 '소호명가 상품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이 광주 전남 우수 중소기업 대상 농·특산물 직거래 단독행사인 '소호명가(小湖名家) 상품전'을 전개해 중소기업 판로확보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주은행이 공동 진행하며 백화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매년

유통사업단, 청계영농조합법인, 현대 영농조합법인, 불두막식품, 원도비단식품 등 16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일정액을 독거노인돕기 기부금으로 기탁 할 예정이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점 점장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발굴해 크게 키워내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카드사 '고금리 장사' 여전

리볼빙 수수료 3분기에 일제히 인상

신용카드사들이 금융 당국의 자체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금리 현금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신용카드 대출 대상자의 대부분이 빚에 시달리는 고객이라는 점에서 '악랄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계 카드사가 빚에 앉은 저신용자의 '돌려막기'

중소기업 상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광주은행에서 우수 상품 추천을 받아 정책지원에 나서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매장 판매 지원을 맡아 중소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상품전에 초대된 업체는 강진

도강요, 순천잠실영농조합법인, 에이치씨바오텍, 행복한공예방, 터전, (주)리안, 지식도요, 용우상상, 이례 유통영농조합, 경향유통, 한국참다래

/연합뉴스

광주은행,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 '우수'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올해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에서 최고 점수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은 펀드판매회사 30개회사 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원이 판매창구를

방문해 점검했다. 특히 을해는 예전과 달리 실시 시기나 평가기준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진행으로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에서 '우수' 등급은 3개사로, 그중 은행권에서는 광주은행이 유일하다. 특히 광주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